

2 종합

한의대 57명 F학점…계절학기로 유급은 면해 초유의 사태, 팀티칭 성적 엊박자 원인

권도연 기자 khudy94@khu.ac.kr

2025-2학기 한의예과 전공필수 과목인 ‘한의학입문2’에서 57명의 학생이 F학점을 부여받았다. 해당 학생들은 2025학년도 동계 계절학기로 위 수업을 재수강하며 유급을 면했다.

‘한의학입문2’는 한의예과 1학년 전공필수 과목으로 지난 학기에는 총 106명의 학생이 수강했으며, 이 가운데 57명이 총점 100점 중 F학점 기준 57점을 넘지 못해 F학점을 받았다. 한 강의 수강생의 절반 이상이 F학점을 부여받은 것은 한의대에서 전례 없는 일이다.

해당 강의는 한의과대학 한의교육학 전공 인창식(침구학) 교수와 생리학 전공 김우진(동서의학) 교수의 팀티칭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평가는 두 교수가 총점 100점 중 각각 50점씩 맡아 진행했다.

인 교수는 “각자 맡은 부분에 대해서만 채점을 진행했기에 성적 정정 기간이 될 때까지 총점이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는 상태였다”며 “성적 정정 기간이 되고 김우진 교수님 한테 총점을 받아보고 나서야 이런 결과를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학칙에 따르면 세부 성적 산출에 따라 성적이 정해지더라도, 강의 담당 교수의 재량에 따라 학점 등급을



한의예과 팀티칭 과목인 ‘한의학입문2’의 지도 교수 2명의 성적 산출 합의가 결렬되며 수강생 57명이 F학점을 부여받았다. (사진=권도연 기자)

조정할 수 있다. 이에 인 교수와 김 교수는 학생들의 등급 조정에 관해 상의했으나, 의견 조율이 되지 않아 학점 등급은 관행적·통상적 기준대로 세부 성적을 토대로 결정됐다.

인 교수는 “김우진 교수님은 전체 학생을 D학점 이상으로 옮겨주는 의견이셨다”면서 “취지는 동의하나, 출결이 매우 불량한 학생 몇 명은 따로 인위적으로 옮겨주지 말고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한해 옮겨주는 것에 동의한다고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인 교수님도 57명이

전부 F를 받는 것은 너무 과한 것 같다고 의견을 주셨다”면서도 “그중 11명은 F를 받는 것이 맞는 것 같다고 하셨는데, 그 11명이 성적순도 아니고 명확한 기준이 없다고 생각해 동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학생들은 성적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해당 과목에서 F학점을 받은 A씨는 “성적 정정기간 마지막 날 인창식 교수님께서 학생들에게 성적 입력 담당 교수가 인 교수님으로 바뀌었다는 메일을 보내셨다”며 “메일을 받고 모든 F학점을 받은 학생들이 인 교

수님께 메일을 보냈지만, 교수님께서는 답장이 없으셨다”고 밝혔다.

인 교수는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로부터 면담이나 회의 요청이 왔었는데, 민감한 사안이니 녹화와 녹음이 되고 회의록이 작성되는 형태의 회의나 면담에는 응하겠지만 그 렇지 않으면 응하기 어렵다고 말했다”며 “줌과 같이 비대면 회의 형식으로 전체 수강생이 다 들어오면 좋겠다고 의견을 전했는데, 그런 회의를 하자고 얘기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A씨는 “교수님께서 대면으로 직

접 참석하셔서 저희 의견도 들어보시는 것이 더 소통이 원활히 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인 교수님은 온라인을 고집하셨다”며 “몇 번 씩 구체적인 날짜를 제안을 드렸지만 참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의대는 내부 논의를 거쳐 ‘한의학입문2’ 과목에 대한 동계 계절학기 개설이라는 조치를 결정했다. 한의예과 박진봉 학과장은 “57명이 동시에 F를 받아 유급 대상이 되는 것은 초유의 사태”라며 “한의대 학장, 부학장, 학과장 등 보직자들이 논의했고, 이후 부총장단위까지도 같이 논의해주시며 ‘적극 행정’ 차원에서 계절학기 개설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의학입문2’에서 F를 받은 57명 전원은 2025학년도 동계 계절학기에 동일 과목을 재수강했으며 이를 통해 유급을 면한 상태다. 박 학과장은 “원래는 전공과목에 대해서 계절학기를 오픈하지 않고, 지금까지는 한 번도 이런 사례가 없었다”면서도 “한 학년에 57명이 유급을 당하게 되면 학사 운영에 큰 차질이 생기고, 그 57명이 F학점을 받은 것이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적극 행정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소식을 알게 된 인 교수는 “일주 일에 3시간씩 수업했기 때문에 계절 수업으로 하기 굉장히 무리인 과목”이라며 “설사 그렇게 했다고 해도 학생들이 충실히 수업을 들을 것으로는 전혀 생각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계절학기 수업을 진행한 김 교수는 “오전, 오후 3시간씩 집약적으로 수업하고, 쪽지 시험도 보면서 수업 운영하는 데 있어 교수와 학생들이 노력했다”고 말했다.

중앙도서관 로비 실감미디어 눈길 제2기숙사 가구 교체도 이뤄져

한민 기자 likeasloof@khu.ac.kr

새 학기를 앞두고 캠퍼스 단장이 한창이다. 서울캠퍼스는 중앙도서관, 국제캠퍼스는 제2기숙사와 국제대학(국제대), 생명과학대학(생대)이 그 대상이다.

서울캠 중앙도서관 1층 로비엔 ‘중앙도서관 공간혁신사업’의 일환으로 ‘실감미디어’ 공간 조성 작업이 이뤄졌다.

이곳엔 미관을 위한 그래픽 디자인을 전시하고, 학생 포트폴리오도 선보인다. 기존에 있던 학습 공간은

사라진다. 오는 25일 학위수여식에 맞춰 임시 오픈한 후, 3월에 정식 오픈 행사가 열릴 예정이다.

학술연구지원팀 최윤희 팀장은 “고전적인 도서관 건물과 현대적인 디지털 미디어가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공을 많이 들였다”며, “제한된 공간이지만 최대한의 효율을 내 로비를 휴식·정보·환대 공간 및 에듀테크를 활용한 혁신 공간으로 재구성하려 한다”고 밝혔다.

국제캠 제2기숙사는 입사 전 가구 교체 작업을 진행 중이다. ‘ㅁ’자 구조로 되어있는 제2기숙사 건물은 안쪽의 내측방과 바깥쪽의 외측방

으로 구성돼 있는데, 이번 방학 기간에는 내측방의 가구만 우선 교체했다. 제2기숙사 행정실 박근영 대리는 “외측방의 가구 교체는 2028년도까지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제대는 모든 층에서 도색 공사가 진행됐으며, 열람실 출입문이 통유리창으로 교체됐다. 국제대 행정실 박성환 담당은 “열람실이 폐쇄적이라는 국제대 학생들의 지적이 많았다”며 출입문 교체 이유를 밝혔다.

생대는 11월 말부터 1월 말까지 두 달간 지하 전산실 환경 개선 공



서울캠 중앙도서관 로비에 실감미디어 공간 조성 작업이 이뤄졌다. (사진=중앙도서관 제공)

사를 진행했다. ▲내부 환경 공사 (에어컨, 바닥 및 천장) ▲하이브리드형 책상 교체 ▲전자칠판 및 신규 컴퓨터 도입 ▲공기청정기 및 제습기 설치 등을 골자로 한다. 생대 행

정실 유재홍 실장은 “하이브리드형 책상과 전자칠판 도입을 통해 단순 전산 실습뿐 아니라 일반 이론 강의도 가능한 다목적 강의실로 탈바꿈 했다”고 설명했다.